

[오피니언]

테마칼럼

광간파 일상

문화의 향기

디자인 세상

미학과 철학



이 기호

“

모 아니면 도. 우리가 사회를, 한 사람을,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또 있을까. 진정 불온하고 위험한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은유나 상징이 거부당하는 사회.

”

얼마 전, 국방부가 제대로 ‘삽질’을 해준 덕분에 잠잠하던 출판시장이 아연 활기를 띠게 되었다. 국방부가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라는 명목 아래 지정한 불온서적 탓인데, 끊하지도 않게 이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온라인서점에선 이를 ‘불온서적’ 고니를 따로 만들어 대대적인 특관행사를 열었고, 출판사들은 출판사를 나름대로 광고홍보에 열을 올렸다.

작가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아니, 국방부가 내 책은 왜 불온하게 안 봐주는 거야? 내 책도 꿈꿔하게 겸업해다오’라는 농담 아닌 진담을 주고 받았다. 아래저래 국방부가 이 땅에 쇠락해가는 인문학 풍토에 지대한 공을 세워준 점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따질 것은 하나 하나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든 학문과 저작의 핵심 명제는 ‘저항’에 있다.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와 사상에 ‘저항’하고 ‘의심’하는 것,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모든 책의 첫 문장은 시작되는 것이다(제례에 순응하고 딱스하는 책이란 일종의 영혼 없는 글쓰기와 진배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 땅에서 가장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서적은 ‘성경’이고, 불온하기로 치자면 ‘김수영 시 전집’을 따라 읽을 만한 책이 없으며, ‘맹자’만큼 반정부적 성향도

불온한 것들

이 절은 도서도 없다. 모두 각 시대에 ‘불온’의 짙지를 붙이고, 저항정신을 극단으로 몰아붙인 서적들이다(그런 저항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한데, 국방부에선 그런 서적들은 허용한다. 이 부문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대목은 책을 읽는 사람들의 해석의 무게중심일 것이다. 왜 누군가에게는 ‘불온’하게 보이는 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온순’해 보이고,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반정부적’으로 보이는 것이 또 다른 집단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가의 문제.

예를 들어 이번에 국방부가 ‘반자본’으로 나인찍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인들의 경우’, 책의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 분명 ‘세계화’를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이것은 결코 ‘자본’에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현 체제 ‘자본주의’에 경고를 보냅으로써, ‘자본주의’를 더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자는 저자의 숨은 의도가 들어 있는, 그야말로 ‘친 자본적’ 성격의 도서이다(나는 분명 그렇게 읽었다). 한데도 국방부가 이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들의 독해 능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세상을 일대일로만 해석하고, 그 어떤 은유나 상징도

통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 사실, 군대란 조직에게 은유나 상징이 끼어들면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명약관화된 일. 그러니 어찌면 군대에겐, 속령적으로 인문학 전체가 불온해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불온서적’ 짙지를 붙이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도 좀 오버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군대가 그렇다는 걸 새삼 깨달은 것 마냥 호들갑 떠는 것도 솔풀스러워 보인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군대를닮아가고 있다는 데 사례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군대의 용어, 즉 ‘교두보’나 ‘육박’이나 ‘전진기지’ 같은 어휘들을 신문이나 책들에서 고스란히 받아쓰고 있다(올림픽 중계방송을 봐라. 무슨 전투 중계방송 같다). 그런 용어들은 해석이 일대일로만 반응한다. 모 아니면 도. 우리가 사회를, 한 사람을,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또 있을까. 진정 불온하고 위험한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은유나 상징이 거부당하는 사회.

<소설가·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병희

돌팔이로는 창황한 설명으로 환자를 헷갈리게 만들고, 명의는 증세를 꼭 집어서 말해 환자가 ‘아하’하고 병원을 나서게 한다.

사흘간의 약을 받아간 아이들 중 다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반도 되지 않는다. 반 이상이 꽤 차다고 생각하면 나도 ‘의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의사란 과연 어떤 의사를 말하는 걸까.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의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사, 꼭 필요한 치료만 하는 의사, 많이 묻고 환자의 의견을 존중

떠오른다. 그 아이들 주위에는 항상 걱정어린 눈빛의 부모들이 있었다. 아픈 아이가 건강하게 됐을 때 기쁨을 함께 느꼈고, 심한 병이 발견돼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할 때는 걱정을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어린 환자와 보호자들 틈에서 마음가짐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루 진료를 마칠 때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서운하게 대했던 것이 떠올라 헌신자로 아파한다. 환자가 밀려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기도 하고, 오해에서 비롯된 말투 등에 본의 아니게

훌륭한 의사란?

하는 의사,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의사, 솔직하고 겸손한 의사. 환자들이 ‘의의’를 설명할 때 허니 쓰는 말들이다.

반면 의사가 보는 좋은 의사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타병원에서 보낸 환자를 잘 쟁겨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또 “왜 이제 왔느냐”, “이런 약은 옛날이나 써던 약인데”, “어디서 이파위 진료를 받았느냐” 등의 협상을 하지 않는 의사. 자기가 최고인 듯, 자신 만이 최신지식을 아는 양 행동하지 않는 겸손한 의사가 환자도 잘 보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겐 지식, 경험, 친절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가져야 할 것이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아이들을 치료한지 20여 년이 돼간다. 돌아보면 많은 아이의 해맑은 모습, 힘들고 지친 모습, 무서워하고 놀라는 모습 등이 머릿속에

<미래동병원 원장>

기 고



박사규

자연이란 참으로 오묘하고 이상아름한 것이다. 그렇게 애생마처럼 식을 줄 모르고 덤벼들더니 더위가 쳐서리는 절기 가 지나더니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한풀 꺾여 아침저녁 품새로 들고나는 찬 바람에 젖은 이부자리를 찾는다.

집 근처를 멀리 떠나 냉 빙 광주 국군 병원의 넓다란 연병장엔 잡초만 무성하다. 폭염과 여름밤에 쏟아진 폭우 속에 서 맹꽁이가 그렇게 물어대더니 이제 맹꽁이는 운데네에 없고 세월을 물어버린 듯 짖는 코스모스 몇 송이가 하늬바람에 한들거린다. 아침저녁 물어내는

벌초 길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어릴 때 들은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포근하다.

그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이 보를 납지 납았으니 우리의 빨리빨리 성질도 이해 품이면 더욱 더 빨라진다. 예나 지금이나 이맘 때면 낭방곡곡에서 어김없이 행하는 것이 조상의 묘를 돌보고 벌초하는 일이다. 이 얼마나 아리따운 우리네 미풍양속인가. 향긋한 생각 속에 파묻혀 있을 품이면 그것도 잠시, 시대의 변함과 세월의 흔적 속에 이제는 조상의 벌초도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겼으니 이제 좀 더 지나면 아예 제사도 대신 지내주는 업체는 생기지 않을까 자문자답을 해본다. 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벌초는 커녕 아예 조상의 묘를 멀리 해버리는 배은망덕한 풍습 속에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은 점점 사라져 가리라.

이런 저런 생각 속에 조상들의 얼굴들을 그리며 페허처럼 제멋대로 자라난 잡목들을 헤치면서 조상의 묘소를 찾아

닌데 제철을 알아차리고 꽂망울을 터트리는 들꽃. 자연을 아우르는 업연한 질서에 절로 고개 숙여질 뿐이다. 더불어 그런 자연을 인간인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지 않나 반성하면서 자연의 조화로움과 오묘한 이치를 본받아 조상을 숭모하고 조상의 얼과 발자취를 더듬는 벌초는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해본다.

조상의 숭배는 만고의 진리이자 법칙이다. 우리 대가 아닌 후손, 자손 만대로 더 큰 효행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늘 벌초를 내가 먼저 하지 못한 미안함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무성이도록 자란 숲 길을 헤치고 내려오면서 일찍 잊어버린 부모님을 그린다. 살아 생전에 못 다한 효를 이제야 누우치며 내년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살며 각기의 삶에 열중하고 있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때 이론 조여름에 일찍 찾아와 벌초를 하리라고 굳게 다짐한다.

<광주 극락초등학교 교장>

도서관 좀도둑 예방 CCTV 설치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관리를 소홀히 한 나의 실수도 있겠지만 도서관 주변은 항상 좀도둑이 응크리고 앉아있는 듯하다. 대학 도서관 대부분이 좀도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도서관 입구에는 오래전부터 ‘도난 주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고 그 옆에는 항상 ‘물건을 돌려달라’는 메모가 애처롭게 붙어 있다.

언젠가 ‘지갑 속에 든 수첩표면이라도 돌려달라’는 글이 붙어있는 것을 봤다. 그 학생은 접수한 토익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사례였다.

<배근아·광주시 동구 소재동>

농촌·도시 아이들 함께 공부하는 방학교실 개설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교육 열풍으로 사교육 시장이 들끓었다. 하지만 농촌은 사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니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과외 학원도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농업이 어려운 때에 학원 보낼 형편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각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단양 고서초등학교는 방과후 교육을 특성화한 뒤 학기종 수업과 접목을 시켰더니 광주에서 7명의 아이들이 시골 학교로 전학왔다고 한다. 이 학교는 학기 중에 생활영어와 보육교실, 풋살부, 독서토론부,

<김근근·광주시 서구 쌍촌동>

시 설

‘지방’ 반발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할 건가

경기·서울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중진 의원들도 동조하는 양상이다.

총청관, 영남권, 호남권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방’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은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 자자체들은 규제 완화에 대응해 다음달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갖는다.

수도권 단체장의 발언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주도해야 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까지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최상철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규제를 단칼에 해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정책은 균형과 조화, 상생과 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하루빨리 균형발전 의지를 재인명해 소모적 논쟁에 중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지역제품 외면하는 대형 할인점 각성해야

광주·전남에 진출한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이 지역 중소업체 제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자체 브랜드 제품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면서 구매량을 늘리고 있으나 지역 업체 대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업체에서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형 할인점의 자체 브랜드 도입은 유통업체의 새로운 트렌드다. 홈플러스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끌어들여 1만1천개 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마트는 청과와 야채부터 가전·생활용품에 이르기 까지 6개 자체 브랜드 3천여개 품목을 출시했다. 롯데마트도 13개 브랜드, 6천 90여개 품목을 개발했다.

대형 할인점들이 자체 브랜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업체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잘 활용하면 할인점과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2008 베이징을 립피아 끌었지만 감흥은 이어지고 있다. 올림픽 출전 사상 최다인 금메달 13개를 따내 종합 7위와, 아시아에서 일본을 누르고 2위에 오른 대한민국 선수단은 귀국 후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개선한 선수단은 정부와 소속사, 고향에서 이따금은 열어주는 환영행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윙크 세리미니’를 날려 깜짝 스타로 떠오른 화순 출신 이용대(20·삼성전기)는 27일 고향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28일에는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차동민(22·한국체대)이 출신지인 장흥에 내려와 잔치를 벌였다.

빛이 있으며 아름도 있는 법. 우리와는 반대로 성적이 나쁜 국가는 초상집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 1개만을 목에 걸고 귀국한 이집트 선수단은 성적 부진 때문에 정부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최

베이징에서 박애환에 따른 수영 금메달로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이지만, 육상 등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종목별 불균형은 여전했다. 이제 잔치 상은 거두고 4년 후 런던올림픽에서도 감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호흡을 기다려야 할 때다.

/박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無等 鼓

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2008 베이징을 립피아 끌었지만 감흥은 이어지고 있다. 올림픽 출전 사상 최다인 금메달 13개를 따내 종합 7위와, 아시아에서 일본을 누르고 2위에 오른 대한민국 선수단은 귀국 후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마인주 대만 총통은 한국의 사례를 꼽으며 자국 선수단을 나무랐다. 마 총통은 지난 26일 귀국한 선수단을 만나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한국을 보라. (이를 따라 잡기 위해) 우리는 면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애초 금메달 7개를 목표로 삼았으나 결과는 동메달 4개에 그쳤다. 특히 야구에서는 최약체인 중국에도 뛰어 위에 러웠다.

베이징에서 박애환에 따른 수영 금메달로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이지만, 육상 등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종목별 불균형은 여전했다. 이제 잔치 상은 거두고 4년 후 런던올림픽에서도 감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호흡을 기다려야 할 때다.

/박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
<th colspan="
| |